

MBI 다단계 사기 사건, 터무니 없이 가벼운 형량에 ‘분통’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MBI주범 테디투우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피해자는 매일이 지옥... 중형 처벌 목소리

수원, 전체 피해액 5조 중 47억에 달해
일당 중 2명 징역 6년·4명 '무죄' 선고
전체 피해 규모 커도 개별액 소액 이유

다단계 사기 'MBI사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을 받아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수원고 법에서 MBI 사건에 연루된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년간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펜이스"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사기조직 MBI는 국내 8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 원 대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의 진행, 투자금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수원 지역 피해자는 총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합산해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1명의 피해금액 중

가장 큰 액수를 반영해 처벌한다"며 "MBI사건 총 피해금액이 47억 원이라도 1명 당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형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MBI사건 피해금이 5조 원이니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1명 당 피해금이 5억 이상인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A씨 일당에게 내려진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인천 등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들은 매일이 지옥이니 징역 20년은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보현 기자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배우자)

반성 기미 無·책임 떠넘겨 양형 반영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매수 시도”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

직 국회의장의 배우자 등이며 이들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이재명의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을 10년 이상 따르고 수행했던 배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9시 30분에 시작된 공판에서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등을 피력했다.

앞서 김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해 도 법안카드로 이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씨의 전 수행원이자 측근이었던 '공모공동정범'인 배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글=이보현 기자, 사진=옥지훈 기자

도교육청, '교원 역량 강화'로 이공계 인재 육성 기대

2022 개정 교과 과정 이해 연수도 진행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이공계 인재 육성과 2022 개정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을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25일 도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수학교과, 과학교육, 영재교육, 융합·발명·메이커교육, 환경교육 연수를 확대해 교원의 이공계 역량을 키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학교과 ▲디지털 탐구 도구 활용 과학교육 ▲대학 연계 영재교육 ▲디지털 기반 융합·발명·메이커교육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지난 24일 수학교과를 시작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초·중·고 교원 460여 명이 참여한다.

중학교 교육과정 핵심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이해' 연수도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각론 및 평가 역량 신장으로 핵심교원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연수는 14개 교과 핵심교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업 설계 ▲교과별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각론의 이해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과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은 핵심 교원 강사 인력을 활용해 학교 대상 교과별 대면·비대면 연수, 찾아가는 연수, 연구모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정 기자

서경덕 “파리 올림픽, 육일기 응원 막아야”

(성신여대 교수)

IOC에 육일기 응원제지 요청 메일 보내
프랑스 세계 자전거 대회에서 등장
전쟁 범죄 공포 되새김질에 ‘우려’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중에 등장한 육일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을 맞은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IOC에 일본 ‘육일기’ 응원 금지를 요청했다.

25일 서 교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일본 육일기 응원 제지를 요청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메일을 통해 “육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 “육일기 재사용은 과거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사이클 남자 도로 경기 응원 중 육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현재 프랑스 전역을 돌며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전거 대

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도 육일기 응원이 등장하는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육일기의 역사를 제대로 인지한 FIFA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측 응원단이 펼친 육일기 응원을 즉각 제지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전쟁 범죄에 사용된 육일기 응원이 또 등장한다면 IOC는 반드시 제지해야 할 것”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육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 교수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된 육일기 문양에 대해 꾸준히 항의해왔다. 박민정 기자

행복한노후를 위한 어르신과의 동행
다사랑 주니어보호센터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센터
어르신께 행복을 드립니다.

어르신의 행복,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자분들의 삶의 여유를 드리는
화성시 최대시설 다사랑 주니어보호센터입니다.

다사랑 주니어보호센터 (대안빌딩 5층)

광도이마트

기안 중학교

상정 디지털 문화관

신원우남 율리시터

GS 효행로 주유소

문의 : 031-232-0200
주소 : 경기 화성시 효행로 223 대안빌딩 5층

- 주니어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상담기능
- 등급신청, 주니어보호이용 등에 대한문의 기능
- 요양보호사상시 모집

다사랑 주니어보호센터

치매 예방 인지치료

뇌운동

사회적응

건강체조

미술치료

음악치료

목장예배

가족의 마음으로 정성껏

봉사하는 안경체인

IT's GLASSES

이츠글라스 안경체인

| 이츠글라스 체인점 | 가맹문의 010-2840-6388

수원점	031-268-8338	호매점	031-292-0789
수원대점	031-235-2046	오산대점	031-372-7238
기안점	031-222-1017	오산대점	031-372-7238
광교점	031-212-8415	송도점	070-754-8470
세류점	031-221-3383	천안점	031-268-8338
병점	031-237-5696		